

# 민족의 애환 담긴 가요사

박찬호 지음 「한국 가요사 1895~1945」



‘새야 새야 파랑새야’로 시작되는 한국 근대가요의 역사를 분야별로 나눠 그 계보를 풍부한 자료와 에피소드를 곁들여 소개한 책.

지난 87년 재일교포인 저자가 일본에서 출판했던 것을 수정·보완해 옮긴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 유행가를 비롯해 창가·신민요·가곡·동요 등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달래주었던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귀중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해 실었다.

제1장 ‘노래에 담긴 민중의 마음’에서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이면서 지방에 따라 가사나 선율이 각기 다른 아리랑과 대중가요의 시조로 알려진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불려진 시대적 배경과 그 특색, 그리고 이런 노래들이 당시의 사회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창가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일제하에서 불려지던 다양한 형태의

민요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한편 2장 ‘조선 근대 음악의 선구자들’에서는 조선 최초의 예술가곡 봉선화를 작곡한 난파 홍영후와 함께 성악가 김인식·윤심성(윤심덕의 언니) 등 초기의 음악가들에 관한 상세한 소개와 가곡·창작동요의 탄생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유행가. 일본 레코드 자본의 진출로 접화된 ‘요나메끼’(왜색가요)라 불리던 4분의 2박자의 가요가 대중의 크나큰 인기를 얻게 된 이유와 본격적인 유행가였던 황성옛터, 재즈송의 유입, 신민요와 기생가수의 대두, 눈물의 여왕으로 불리었던 전옥의 이야기 등이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4장 ‘가요곡의 황금시대’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과 타향살이의 고복수와 황금심, 애수의 소야곡의 남인수, 김정구, 백년설, 진방남을 비롯해 지금도 장년층의 기억들에 살아있는 인기가수의 노래와 자료사진·일화로 꾸며졌다. 또 백난야·박단마·박향림 등 일세를 풍미한 여자가수와 고운봉·이규남·이인권 등 남성가수들의 인기곡과 활약상도 실려 있다. 마지막장인 ‘암흑기의 가요곡’에서는 일제말기에 부르기를 강요당했던 군국가요도 소개하고 있다. 구한말에서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애창했던 애환의 노래를 진지하게 다룬 무게있는 가요사란 점에서 이 책은 특별하다.

현암사 / A5신 / 572면 / 10,000원

# 결혼으로 통합된 한국재벌가

서울경제신문 펴냄 「財閥과 家閥」



국내에 재벌이 형성된 이후 지난 40여년간에 걸쳐 일어난 재벌가의 통혼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이 책은, ‘상류사회의 족보’이자 ‘한국기업의 성장사’로 읽힌다.

모두 52개 재벌기업의 혼인관계를 취재 연재했던 것을 모은 것으로, 가령 럭키금성의 창업주 구인회씨가 6남4녀의 자녀를 재력이 내지 명문가에 출가시켜 국내 정계와 재계의 유력 인사 집안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들이 실려 있다. 삼성그룹·대림산업·두산그룹·한일수산·삼일통상 등이 구인회씨 집안과 사돈 지간이며 이 가운데 두산그룹을 따라가면 강성진 전 증권협회장을 거쳐 김복동씨와 노태우대통령과 이어지며 삼성그룹쪽으로 추적하면 흥진기 전 내무장관을 거쳐 노신영국무총리를 통해 정주영 전 현대그룹명예회장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재벌들의 혼맥도를 따라가다보면 마치 핵분열 현상을 보는 것처럼 어지러워

진다. 이 책에 언급된 재벌가문은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된다.

또 이책의 서문에서는 인하대 공정자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 대기업가 가족의 혼맥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1백대 재벌의 혼사 가운데 아들쪽 1백24명 중 49명이 기업인, 75명이 비기업인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들 집안을 살펴보면 전·현직 대통령이 2명이고, 총리·부총리가 3명,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24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재벌은 재벌이 아니면 정계나 관계의 실력자 집안과 혼인함으로써 한국형 귀족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의 경우도 부인 김옥숙씨의 오빠인 김복동씨를 거쳐 정주영씨와 다섯단계를 거친 사돈이 되며, 이기택 민주당공동대표와도 먼 사돈이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재벌과 권력의 유착으로 어떤 특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밝힌다. 다만 한국화약이 명성그룹과 한양유동을 인수한 것이 5공시절이라는 등의 예를 들고 있을 정도.

재벌가가 같은 재벌이나 정·관계의 집안과 계속 통혼함에 따라 한국의 상층부는 결혼으로 통합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재벌들이 같은 재력가나 권력자와의 혼인을 통해 보완적 육구충족과 사회적 지위의 보전 및 신분상승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찾는 일은 너무 쉽다.

지식산업사 / A5신 / 480면 / 12,000원

인간과 자연,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녹색의 이야기들

## 가우디의 바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이 지구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에서 바라보면 그토록 아름다웠던 녹색의 지구—지구는 지금 결코 무사하지 않습니다. 여우깡길이가 그렇게도 부러워했고 그렇게도 되고 싶어했던 인간, 그 인간이란 존재 때문에 지구는 이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가우디의 바다》에서 인간과 지구의 앞날의 캄캄한 절망을 읽고, 희망은 어디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가우디의 바다》— 이 책은 인간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메시지가 담긴 여섯 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우깡길이의 슬픔, 눈 오는 산, 가우디의 바다, 캄캄한 전설, 사막의 공룡, 두군가.

• 이 책 《가우디의 바다》의 줄기가 어수룩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재생지를 씁니다. 디지털 신지 지음 / 디지털 가즈코 그림 / 최시림 옮김 / 값 3,500원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의 신간

•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팩시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어니스트 칼렌바크 환경미래소설

## 에코토피아

에콜로지Ecology+유토피아Utopia—생태학적 이상향 혹은 환경낙원

정교한 과학적 상상력으로 구축해낸 인류의 미래상

21세기의 어느 무렵 미연방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생태학적 이상국가 에코토피아의 사회상을 그린 고전적 환경미래소설. 미국으로 상징되는 기존 산업사회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에코토피아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상을 모색한다. 미래사회의 대안적(alternative)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사회의 생태학적 환경정책 및 기간 산업에 중대한 영감과 시사를 준 미래소설의 걸작.

어니스트 칼렌바크—H. G. 웰스, 폴 베른, 윌리엄 헉슬리, 조지 오웰에 뒤이어 나타난 이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김석희 옮김 / 4,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 도시빈민 삶 다룬 현장연구

「저소득층의 주거지형태 연구」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성장의 그늘에 가린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도시빈민의 삶과 주거공간에 대한 현장 연구서 두권이 잇달아 출간됐다.

「저소득층의 주거지 형태 연구」(양윤재)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조은·조옥라)이 그것.

‘거대도시 서울의 또다른 삶터’라는 부제를 단 「저소득층의…」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의 첫 저서로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에 의거, 지난 30여년 동안 행해진 불량주택 재개발에 의해 이리저리 쫓기고 내몰리며 겨우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한 데 모은 것이다.

구로4동, 밤골지구, 봉천5동, 금호3가동, 신림2동, 신림7동 등 이른바 ‘달동네’로 칭해지는 주거지 10개 구역을 선정, 그 구역을 다시 대지, 가로, 건물 등의 건축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그 공간구조와 형태적 특성을 밝히고 있

다. 대상지별 전경도를 비롯, 본문과 관련한 생활현장 사진을 함께 수록,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준다.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은 저자들이 1986년 6월부터 1988년 말까지 약 2년 6개월간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당동의 한 지역에 대한 현장 연구를 통해 작성했던 「도시 무허가 정착지의 성격과 생활실태」와 「재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재구성하고 이후의 자료를 보완해서 펴낸 책.

참여관찰,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 철저한 현장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기 직전의 지역성격과 주민들의 생활실태, 재개발 추진과정, 재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실태 등을 밝히는 한편, 재개발이 갖는 의미와 재개발 과정에서 분출되었던 지역민운동의 성격과 한계,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생생한 현장체감과 성실한 조사가 바탕된 구체적 사례제시를 통해 연구보고서로서 뿐만 아니라 생생한 르포르도 읽혀질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재개발 정책은 우리사회에서 구조화 되고 있는 빈곤의 세습을 가속화할 뿐”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

열화당 / B5변형 / 138면 / 7000원  
서울대출판부 / A5신 / 168면 / 4000원

# 별자리에 얽힌 신화와 전설

푸른숲 「별과 떠나는 이야기 여행」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우주 공간의 신비를 느끼게 하고 끝없는 상상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밤하늘의 별자리에 얽힌 신화와 전설을 엮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극소화하는 한편 신화와 전설의 원형을 바꾸거나 축소함 없이 최대한 살리고 그것들이 담지하고 있는 상징이나 은유를 쉽고 재미있게 기술, 책읽기의 흥미와 별자리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했다.

국내에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는 그리스 신화뿐 아니라 중국, 몽고, 이집트, 뉴질랜드, 한국 등 다양한 나라의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와 인디언의 전설까지도 폭넓게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별자리 이야기를 계절별로 나누어 「봄별자리」 「여름별자리」 「가을별자리」 「겨울별자리」의 4권으로 따로 정리, 별자리의 모양과 위치, 계절에 따른 운행 또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했다.

「봄별자리」에는 제우스와의 사랑으로 인해 헤라여신의 질투를 받아 꿈이 되어버린 아름다운 여인 칼리토스와, 그의 아들 아르카스의 가슴아픈 신화를 간직한 ‘큰곰자리·작은곰자리’를 비롯, ‘목동자리’, ‘머리털자리’, ‘북두칠성’ 등 9개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 18편이 수록돼 있다.

「여름별자리」에는 우리나라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와 유사한 일본의 소치는 목동 ‘하연’과 귀양온 선녀 ‘직녀’의 애절한 사랑의 전설을 지니고 있는 ‘독수리자리’ 등 8개 별자리의 이야기 14편을 담고 있다.

「가을별자리」에는 널리 알려진 에로스와 프쉬케의 사랑의 이야기를 지닌 ‘화살자리’와 ‘물병자리’ ‘양자리’ 등 10개 별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됐다.

「겨울별자리」에는 지구와의 거리가 18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북극성’에 얽힌 인디언의 전설을 비롯 11개 별자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계절별 별자리 칼라 화보와 삽화를 수록, 이해를 돕는 한편 각 권말에는 학습태도와 교우 관계를 중심으로 한 ‘행운의 별점’을 덧붙였다. 글과 삽화는 각각 박매영, 권혁분씨가 맡았다.

푸른숲 / B6신 / 각 180면 내외 / 각 4000원

# 편집집

## 제 17기 취업대비 정규반

- 실무위주의 취업대비3개월 속성과정
- 모집인원 : 오전 / 오후 / 야간 각30명
- 자 격 : 대학재학생 및 졸업자(전공불문)
- 모집기간 : 현재접수중(각반 선착순 정원제)

## 본원의 특징

- 저자 직강의 최고 수준의 강사진
- 반별 철저한 정원제 교육
- 실무위주의 완벽한 실습교육

신문 / 잡지 / 사보 / 출판 / 광고카피 / 컴퓨터 편집

저희 중앙은 색깔있는 편집지만 양성합니다.

이제 전통도 쌓았고 각 업체에서 제법 칭찬도 듣습니다.

최신의 체계적인 편집교육후에 언론출판분야 및 첨단인 컴퓨터편집자로 진출합니다.

전원취업추천해 드립니다.

중앙잡지편집학원 ☎ 364-3677~9 (서대문 경기대앞)

## 편집 / 취재요원문의

- 연락 즉시 취업예정자 명단을 보내드립니다.
- 협조해 주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취업보도실 ☎ 393-4413 FAX 364-3679

## 전임강사초빙

① 확장이전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실력자를 초빙합니다.

- 모집부문 : 출판·잡지
- 자 격 : 관련학과 석사학위자로서 편집경력 7년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 증명서 각 1통씩
- ※ 특전 : 각종혜택있음(단,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